The Easter Story – as told by Karen Wright Korean - March 22, 2024		
THE EASTER STORY 2024 Presented by Karen Wright		부활이야기 2024 캐런 라이트
It's good to be sharing with you again. It's incredible that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our Christmas message. At Christmas, when we talked about the birth of Jesus, we focused on the word, "peace." Do you remember how I tried to pronounce it in different languages? I won't try that again today, but think about the word in your first language.		여러분과 다시 함께 나눌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세지를 나눈지 벌써 세달이 지났다는게 놀랍습니다.
As I prepared this message, I thought of several friends who have been experiencing very difficult times. Adult children of two friends have died recently. A longtime friend recently died of cancer. Dear friends in Chile lost their house to a fire. How could these friends experience peace? The events in our world bring to mind everything but peace.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두 명의 친구의 성인 자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암으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칠레의 소중한 친구들이 불로 집을 잃었습니다. 이들 친구들이 어떻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평화 이외의 모든것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I am sure that many of you have situations in your families that we would not call peaceful, but today we will continue with the theme of peace, believing that the peace that God offers is possible.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족 내에서 평온하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바에 Everything that I share today is based on 기반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와 같이 여러분에게 what the Bible teaches. I want to encourage you, as I did at Christmas, to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성서를 읽어 보시기를 권하고 read it for yourself in your own language. There are papers on your table with 싶습니다. information about Bible apps for your phone 당신의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성서 앱 and also the main references for reading the Easter story. 정보와 부활절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주요 참조 정보가 Your table hostess has brought a Bible that 포함된 종이가 있습니다. she can show you. The Easter story can be read in each of the four gospels, 당신의 테이블 호스트는 여러분에게 보여 드릴 수 있는 Matthew, Mark, Luke and John.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마테, 마르코, 누가. 요한의 네 권의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To tell the Easter story, we have to go 부활절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back even before the Christmas story, 이야기보다 더 멀리, 창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all the way back to creation. When God created the world, His plan was for 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의 계획은 모든 everyone to live in peace and harmony. 이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He created a beautiful world, with everything that we would ever need for 것이었습니다. happiness. 하느님은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을 갖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God created humans with free will, the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 의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ability to choose to follow Him and His 하나님과 그의 완벽한 계획을 따르거나 자신의 길을 perfect plan, or to follow their own way. People chose to follow their own plan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and to rebel against what God had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proposed for them. This decision to follow our own way is called sin, and it 제안하신 것에 반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자신의 has been a part of every human life 길을 따르는 결정은 죄라고 불리며, 태초부터 모든 since the beginning of time.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You may rememb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n Genesis - the 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first book of the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Bible. Genesis Chapter 3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했습니다. 역사를 This sin caused us to be separated from God. It has caused all of the pain. 통해 세계가 경험한 모든 고통, 고난, 전쟁은 모두 이 suffering, and war which the world has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perienced throughout history. Because God is holy, He cannot tolerate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sin, but out of His love for us, He made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a plan from the very beginning to bring us back into a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계획을 This would restore our peace.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That's where the Christmas story comes in. After the prophets had told for years about His plan, God sent His son, Jesus, actually God Himself, as a baby to earth.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한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실상 하나님 그 자체를, 아기의 모습으로 지구에 보내셨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story from December about Mary and Joseph and the angels who announced His birth to the shepherds? They announced that Jesus would be the Savior of the world. In other words, he would provide a way for sin to be forgiven.	12월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Before we continue, let me share what a couple of the early prophets said about the coming Savior. These prophets lived hundreds of years before Jesus was born. Isaiah said,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sinner)" but the effect of righteousness will be peace." Isaiah 57:21 and Isaiah 32:7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 오랜 옛날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구원자에 관해 말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악인(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평강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7:21 그리고 이사야 32:7
Zechariah said, "And he shall speak peace to the nations." Zechariah 9:10 Remember how the angel announced that Savior had come for all peoples of the earth, and how the Wise Men who came from far away recognized that?	스가랴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에 평화를 전할 것이다." (스가랴 9:10) 천사는 구원자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멀리서 온 현명한 자들이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을요?
This baby grew up and became a man. We don't have much information about the first 30 years of his life, except that he became a carpenter. At the age of 30, he began traveling and telling God's story to people in the Middle East. His message to those who believed in him was a message of peace.	이 아기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30년 동안에 대해는 별다른 정보가 없지만, 나중에 목수가 되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30세에 그는 여행을 시작하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Once he gave a message called the 한 번 그는 산에서의 설교라 불리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Sermon on the Mount, in which he taught how to live at peace with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other. His words of wisdom and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과 하나님에 teaching about God amazed the people. 관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5장 - 7장 Chapters 5 - 7 Once he calmed a storm on the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Sea of Galilee "평안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by speaking the words,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Peace! Be 마태복음 8장 23-27절 still!" The wind ceased. Matthew 8:23-27 After healing a woman who had a bleeding problem for 12 years, he told 12년간 출혈 문제를 겪고 있던 여성을 치료한 후에 her,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disease."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네 질병에서 His power to calm 나음을 얻었도다." 폭풍을 가라앉히고 병을 치유하는 storms and heal 그의 능력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was evidence that he was fully 증명했습니다. God, as well as 누가복음 8장 43-48절 fully man. Luke 8: 43 - 48 Even when he knew that his death was coming, Jesus said to his follower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give you."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John 14: 27 The world into which Jesus came was not a peaceful world.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The Roman Empire ruled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사는 땅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much of the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world, including the land where

Jesus lived.

Religious leaders did not believe that Jesus was the Savior, or Messiah, whom God had promised through his prophets. They were jealous of his popularity and were afraid that he would cause problems with the Romans. One of his own followers even betrayed him and another openly denied him. All of this resulted in Jesus being taken to trial when he was only 33 years old.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또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기에 시기를 느끼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로마인들과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그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겨우 33세에 재판을 받게 된 결과였습니다.

He was tried before the religious leaders and also by the Romans. None of the trials were valid, but they resulted in him being condemned to die.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재판도 유효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 그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The Romans had a very cruel and painful way of executing their criminals, called crucifixion. It consisted of hanging the person on a cross, exposed to the elements. Jesus was first beaten, a crown of thorns was placed on his head, and then he was nailed to the cross, beside two thieves who had also been condemned. One of them actually realized that Jesus was not a criminal and believed in him as Savior while on the cross.

로마인들은 범죄자들을 매우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했는데 그것은 십자가형 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아 두었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매를 맞고, 가시 왕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으며,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 옆에는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실제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The terrible day on which all of this occurred is called Good Friday, which this year is next week.

How could such a day be called good? It's because it is the day that Jesus, in his death, paid the penalty or price for all of the sins of the world, for my sins, for your sins, and for all those who have ever lived.

이 모든 일이 발생한 끔찍한 날은 선한 금요일(굿프라이데이, 성금일)이라고 불립니다. 올해는 다음 주입니다.

어떻게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모든 세상의 죄, 나의 죄, 당신의 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records several of Jesus' words before his death. As he was being nailed to the cross, he said, "Father, forgive them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Although we can't understand how God could love us so much to allow Jesus to die, that is how much He loved us. Because Jesus was at the same time God and man, he never sinned, so he didn't need to pay for his own sins. He could pay for ours.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기를 허하실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After Jesus' death, his body was removed from the cross and placed in a borrowed tomb, a small cave with a stone rolled in front. Indeed, Good Friday would need to be called Terrible, Horrible Friday if the story had ended there, but it didn't.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빌린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가 돌로 막힌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On Sunday morning, some of the women who had followed Jesus went to the tomb to place aromatic spices on the body, as was their custom. As they walked, they wondered how they were going to remove the large stone. They arrived at daybreak, and to their surprise, the stone was rolled away.	일요일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의 여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Angels told them that he had come back to life (risen) and that he would see them soon. They ran back to tell Jesus' other followers the astonishing news.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렸으며, 그가 곧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appeared to his followers various times and was on the earth for 40 days before he returned to heaven.	성서에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Jesus did not leave his followers alone. He promised that his spirit, called the Holy Spirit, would be with them, teaching them, guiding them and comforting them. That is the presence of God which we experience in our lives today.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의 영을 제자들과 함께 있게끔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위로했을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So who experiences this peace today? Whose sins are forgiven? By now, it's obvious that we aren't just talking about peace between nations and the absence of war. We're talking about the kind of peace that makes us calm, even when the circumstances around us are frightening.	그래서 오늘 누가 이 평화를 경험하나요? 누구의 죄가 사함받았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국가 간의 평화와 전쟁없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무서울 때조차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s the kind of peace that when a loved one dies, assures us of the hope of eternal life with God and our loved ones in heaven. It's the kind of peace that removes guilt from our minds and hearts, from things that we know we've done wrong.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he didn't just automatically forgive everyone's sins.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리라는 희망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없애주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자동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Remember that God created us with free will, the ability to choose. That means that we have the ability to choose whether or not to accept what Jesus did for us and whether or not to accept his forgiveness.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분의 사함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earn that forgiveness.	우리는 그 사함을 얻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We can't work for it. All we can do is accept it and realize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that God has forgiven our sins. We choose to follow Jesus and the way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of life that he gives us.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That's why Easter is celebrated by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Since	
Jesus rose from the grave on a Sunday morning, we celebrate Easter	그것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once a year and also gather to worship every week on Sunday.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한 번 부활절을
	축하하고 또한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Easter	모이게 됩니다.
For those of us who live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 celebrate Easter in the spring. The flowers, the bunnies, and	
pretty clothes remind us of the life that Jesus gives us. What is most	우리 중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봄에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꽃, 토끼, 아름다운 옷들은 예수님이
important, however, is what Jesus does for our inner life.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삶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Christians use the cross as a symbol of	
their faith. It reminds us what Jesus did in sacrificing his life on a cruel day in order for our sins to be forgiven. But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most important - he came back to life to give us eternal life.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	-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You may see images of Jesus on the cross.	
Data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But the empty cross reminds us that Jesus is alive.	비어 있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다시 사신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Jesus is alive.	। ४८। ाटा घणाणः

If your children receive plastic Easter eggs this year with candy, after they've removed the candy, remember that the most important event in history can be remembered by the empty Easter egg. The tomb was empty on Easter morning. Jesus is not dead! He is alive!



올해 당신의 아이들이 사탕이 든 플라스틱 부활절 달걀을 받는다면, 사탕을 먹은 후 비어 있는 부활절 달걀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The Bible says that "God proves His own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Jesus died for us...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Romans 5: 8 and 10).

It also says,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that each of you would experience this peace.

Happy Easter!

성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로마서 5:8, 10)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각각의 여러분이 이 평강을 경험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